

21세기 선도할 종합정보기술회사 위상정립

현대정보기술(HIT)은 9월 말 현재 250억원의 자본금과 2,156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4년도에는 1,001억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정보기술 연혁

1993.	9. 현대정보기술(주) 설립 9. 전산인력 통합 12. 전산시설 인수 계약
1994.	2. SI사업자 등록 5. 연구소 설립 인가 5. 자본금 210억 증자 8. 정보통신사업 개시 9. OSTC (Open System Test Center) 개관 12. ISO 9001 & TickIT증 획득
1995.	1. 1차 전산H/W 통합 (전자, 건설, 상사 IT) 7. 미주법인(HIT USA) 설립 9. 자본금 증자(250억)

현대정보기술(주)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부상하는 정보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1993년 9월 현대그룹 각사가 운영하여 오던 전산업무와 현대알랜브레들리사의 공장 자동화 부문, 현대전자의 정보통신 및 자동화 사업인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선박 자동화, PLC 및 자동화 진단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대표이사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택호 사장이 선임되었으며, 1993년 9월 1일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20여개 그룹사 전산실의 인원 및 장비를 통합하였고, 1994년 2월 SI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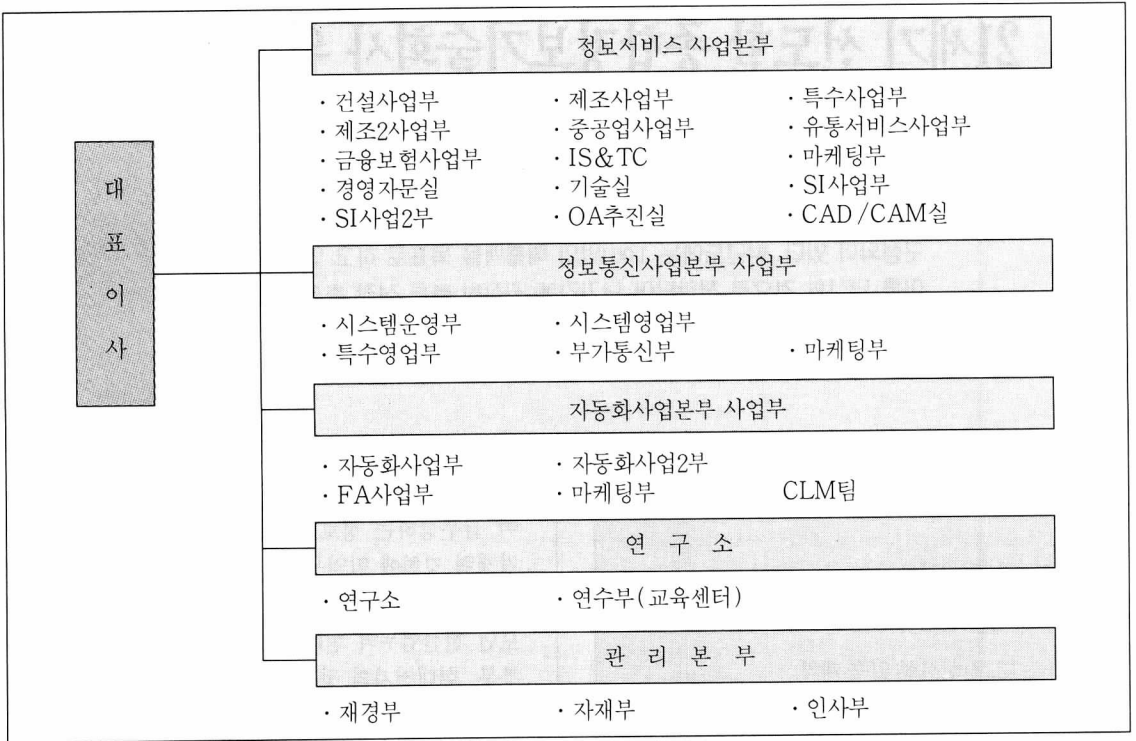
현대정보기술(HIT)은 9월 말 현재 250억원의 자본금과 2,156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4년도에는 1,001억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정보기술의 연혁을 살펴보면 옆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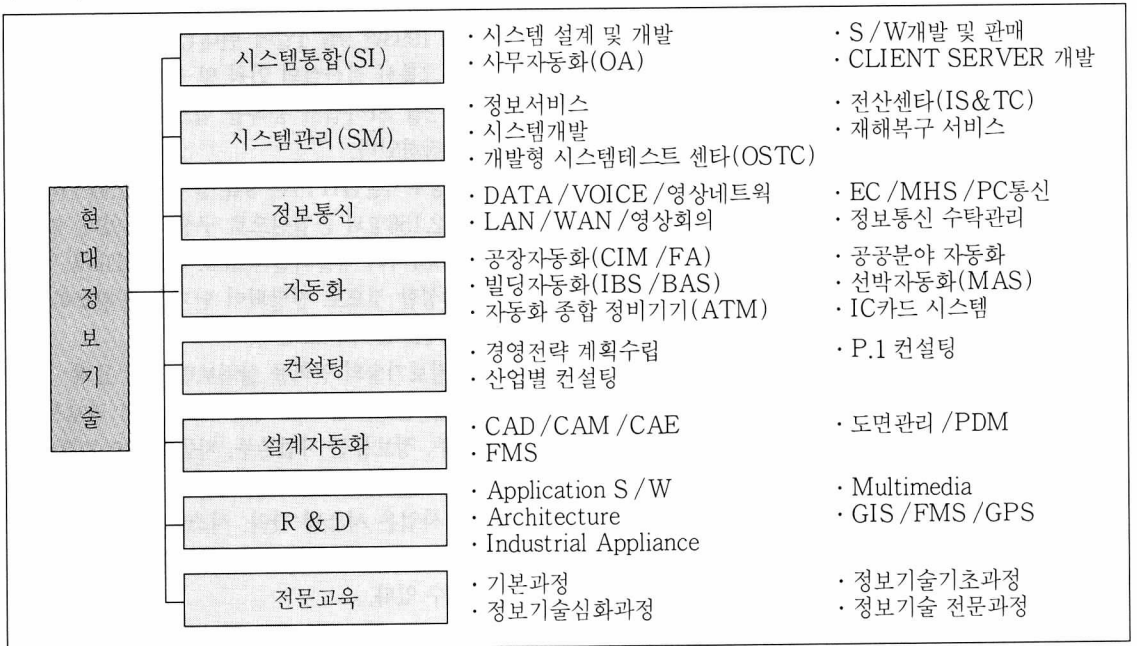
조직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아래 크게 정보서비스 사업본부, 정보통신 사업본부, 자동화 사업본부, 연구소, 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관리, 시스템 통합, 정보통신, 자동화, 컨설팅, 설계자동화, R&D, 전문교육 등으로 나눌수 있다.

<그림 1> 현대정보기술의 조직 구성도



<그림 2> 현대정보기술의 사업 영역



특히 HiVAN 정보통신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분야의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네트워크 서비스

- TDM /STDM /ATM 패킷망
- 무선통신(TRS)
- 위성통신(CLOBAL STAR)
정보통신 수탁관리

* 부가 서비스

- PC통신(현재 시범서비스 실시 중), DB, EC
MHS(FAX, VOICE, MAIL, E-MAIL)

* 네트워크 시스템

- LAN/WAN/영상회의/I-TV
특수사업

* Hivan VISION

- O-VISION
전자결재, 문서수발, 워드프로세서, 화상회의, 전자메일 등 O.A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터키 박스, 통합 솔루션으로 지원
- M-VISION
전국망을 근간으로 해외통신망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기업과 일반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
- H-VISION
홈쇼핑, 홈 뱅킹, 원격검침, 재택근무, 도난 방지 등 홈오토메이션의 미래 제공

현대정보기술은 첨단 교육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객우선의 가치창조를 이루기 위한 마인드 고취, 고객만족을 위한 정보기술력 배양, 경쟁우위의 첨단 정보기술 전수 및 보급, 그리고 1인 1기 전문가 양성 등의 교육목표아래 정보기술 기본교육과 정보기술 전문과정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은 그동안 그룹 각사에서 축적한 노하우의 고객, 인재, 기술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시범모

델을 구축하여 SI사업 기반을 갖추고, 고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매출의 10%이상을 투자, 21세기를 선도하는 종합정보기술회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류의 미래개척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 & TC의 설립이다. 서울과 울산 등에 대규모의 전산센터를 설립하여 고객을 위한 효율적인 전산 서비스의 수탁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정보서비스의 수준과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정기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연구소의 설립이다. 마북리 연구소 단지내에 응용정보기술연구소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정보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미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 제도의 도입이다. 현대정보기술은 고객의 요구 및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종별 전문가를 육성하며, 종합적인 시스템 기획능력을 확보하여 정보기술 제 분야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전문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인사제도를 전격적으로 단행, 실시하고 있다.

넷째, BPR의 추진이다.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략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가 성공의 기본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 고객에게 토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매출액 신장과 인력의 충원이다. 현대정보기술은 2000년도에 약 1조원의 매출과 4,000여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종합 정보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